

학령기 아동의 또래수용 및 가장 친한 학급 친구의 상호성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Children's Peer Acceptance, Reciprocity of Best Friendship, and Psychosocial Adjustment

서울법원어린이집
원 장 정 윤 주

Seoul Court Daycare Center
Director : Yun-Joo Chy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school-age children's peer acceptance and friendship experience were related to their psychosocial adjustment. Peer acceptance was examined in terms of sociometric status and social preference, and the friendship experience was examined in terms of the reciprocity of best friendship. The subjects were 275 children in the 4th or 5th grades. It was found that sociometric status and the reciprocity of best friendship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level of loneliness that children experienced. Interaction between children's social preference score and the reciprocity of best friendship was also a significant predictor of the children's experience of loneliness. That is, the degree to which children are accepted by their peer group predicts the level of loneliness that children experience, but the strength of the prediction depends on whether the children have reciprocal best friends. As for children's self-esteem in relation with sociometric status and the reciprocity of best friendship, only sociometric status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children's self-esteem. However, interaction between social preference and the reciprocity of best friendship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children's self-esteem.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degree to which children are accepted by their peer group predicts the level of children's self-esteem, and the strength of the prediction depends on whether the children have reciprocal best friends.

Corresponding Author: Yun-Joo Chyung, Seoul Court Daycare Center, 1701-1 Seocho-dong, Seocho-Ku, Seoul 137-745, Korea
Tel: 82-2-530-2632 Fax: 82-2-530-2634 E-mail: jychyung@hanmail.net

주제어(Key Words): 또래 수용(peer acceptance),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reciprocity of best friendship), 외로움(loneliness), 자아존중감(self-esteem)

I. 서론

아동의 또래 관계는 연령 증가와 함께 아동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어 학령기에는 가족 관계와 더불어 아동 발달에 관련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아동의 또래 관계는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의사소통 하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등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며(Berndt, 1979; Hartup, 1996; Sullivan, 1953), 아동이 사회적 자신감을 기르고 가족 밖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즉, 아동기의 또래 관계는 심리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아동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상을 형성하도록 하며, 가족 외부의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또래 관계가 아동이 대인관계나 직업에 있어서 적응력이 높은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기술을 익히는 장이 되기도 한다(Bukowski, & Hoza, 1989).

아동의 또래 관계는 크게 또래 수용과 친구 관계의 두 영역으로 구분되어(Bukowski & Hoza, 1989) 왔는데 또래 수용은 아동이 자신이 속한 또래 집단 구성원들에 의해 선호되거나 거부되는 정도이며, 친구 관계는 아동이 또래의 다른 아동과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이인적(dyadic) 관계로서 긍정적인 정서적 유대를 특징으로 한다. 이처럼 아동의 또래 관계를 또래 수용과 친구 관계로 개념적인 구분을 하게 되면서 아동의 또래 관계 연구가 보다 체계화되고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게 되었다.

학령기 아동의 또래 수용과 친구 관계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또래 관계 변수들이 아동의 발달 및 심리사회적 적응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고찰한 것이 많다. 우선, 또래 수용 영역에서는 아동이 또래 집단 구성원들에게 인기 있는 정도 및 배척되는 정도에 근거하여 판정한 또래 지위에 따라 아동이 다양한 적응 지표 상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널리 이루어져 왔다. 최근 10여 년간 수행된 장

기중단적 연구들에 따르면 또래 집단에 의해 거부되었던 아동은 장기적으로 내현화 및 외현화 문제를 나타내며 (DeRosier, Kupersmidt, & Patterson, 1994; Hymel, Rubin, Rowden, & LeMare 1990), 외로움을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며 (도현심, 1996; 김윤경, 이옥경, 2001),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도 적응도가 낮은 경향이 있었고 (Coie, Lochman, Terry, & Hyman, 1992),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Parker & Asher, 1987). 그리고, 또래 집단에게 무시되었던 아동은 성취 동기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Wentzel & Asher, 1995).

한편, 친구 관계는 아동의 정서적인 복지감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이며 (Parker & Asher, 1993), 학령기 아동의 적응과 관련되는 요인 (Berndt & Perry, 1986; Ladd & Kochenderfer, 1996) 으로서, 만족스런 친구 관계가 결핍된 아동은 자아 개념이 낮으며 (Franco & Levitt, 1998),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외로움을 호소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arker & Asher, 1993). 이상과 같이 또래 수용과 친구 관계를 각각 아동의 발달 및 적응과 관련시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아동기의 또래 관계가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단기적,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밝혀졌다.

또래 수용과 친구 관계를 각각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지표와 관련지은 연구 외에 근래에 와서는 또래 수용과 친구 관계가 개념적으로 서로 어느 정도 일치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연구들이 있었다. 연구 결과, 또래 수용과 친구 관계 경험은 서로 관련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알려졌다. 즉, 또래 집단에게 잘 수용되지 못하는 아동들도 친구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또래 집단 수용도가 높은 아동이라고 해서 모두 친구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Parker, & Asher, 1993; Vandell & Hembree, 1994).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또래 수용과

친구 관계가 개념적으로 구분되어야 하지만 이 변수들이 함께 아동의 또래 관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어느 한 변수만을 고찰하는 것은 복합적인 아동 또래 관계를 이해하는데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일상 생활을 고려하면 또래 수용과 친구 관계는 각각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인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공존한다. 따라서 어느 한 변수만을 고찰할 경우 아동의 적응에 있어서 또래 수용이나 친구 관계의 개별적인 중요성을 실제보다 과대 평가하여 아동의 실제 생활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연구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학령기 아동은 또래 집단의 일원으로서 학교 생활을 하며, 또래 집단 구성원 중에서 친구를 사귀게 되기 때문에 또래 집단 수용과 친구 관계는 동시에 경험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또래 관계와 아동 적응 간의 관계를 보다 심도 있게 고찰하고 아동의 일상적인 생활 맥락이 반영된 또래 관계를 이해하려면 또래 수용과 친구 관계를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7).

이처럼 서로 구분되는 또래 관계 유형들을 통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동시에 아동의 적응과 관련시킨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현존하는 연구들도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우선, 또래 수용 및 친구 관계와 관련되는 적응 영역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연구(Bukowski & Hoza, 1989)에서는 아동의 외로움은 또래 수용보다는 친구 관계와, 고립감은 친구 관계보다는 또래 수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또래 수용과 친구 관계가 서로 다른 적응 지표와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또래 관계 유형으로 또래 수용 및 친구 관계와 또래 괴롭힘을 아동의 다양한 적응 지표와 관련시킨 보다 포괄적인 연구(Ladd et al., 1997)에 따르면 또래 수용과 친구 관계가 모두 아동 적응 영역 대부분과 관련되며 관련되는 정도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고 한다. 한편, 또래 지위와 친구 관계 변수가 학교 적응 지표인 학업 성취도, 학교에 대한 태도,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정도를 비교 고찰한 최근의 국내

연구(이은혜, 김정윤, 오원정, 2001)에서도 적응 영역에 따라 또래 지위와 친구 관계가 서로 다른 설명력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는 또래 지위에 의해, 학교에 대한 태도는 친구 관계에 의해, 사회적 행동은 또래지위와 친구 관계 모두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들은 아동의 적응 관련 변수로 또래 관계를 이해하려 할 때 또래 수용과 친구 관계를 통합적으로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 또래 수용과 친구 관계의 상호작용이다. 즉, 또래 수용도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계가 아동의 친구 관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혹은 친구 관계와 아동의 적응 간의 관계가 또래 수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의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모델을 사용하여 또래 수용과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계가 아동의 친구 관계에 따라 다른지 고찰하고자 한다.

사회심리적 적응 영역 중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은 또래 집단에 수용되지 못하거나 친구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동의 중요한 적응 지표로 보고되어 왔다. 자아존중감은 아동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평가 차원의 자아상으로서 일상적으로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것이라는 믿음에 의해 형성되며(Harter, 1982; Rosenberg, 1965) 아동의 심리적 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아동 발달의 전반적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Harter, 1983). 또한, 외로움은 또래 집단의 배척이나 무시 및 친밀한 또래 관계의 결핍이나 부족 등 부적절한 또래 관계와 관련되는 변수로서 아동의 심리 사회적 부적응 지표로 일관성 있게 보고되어 왔다(도현심, 1996; 최보가, 임지영, 1999; Asher & Wheeler, 1985; Crick & Ladd, 1993). 따라서,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또래 관계 변수들 즉, 또래 수용 및 친구 관계와 사회심리적 적응을 관련시키는 본 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적응 지표 중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래 수용과 친구 관계는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또래 수용을 또래 지위와 사회적 선호도로, 친구 관계는 가장 친한 친구의 상호성 여부로 측정하여 고찰한다. 또래 지위는 같은 학급의 또래들이 아동을 좋아하는 정도 및 좋아하지 않는 정도를 점수화하고, 이와 더불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또래들에 의해 지명된 정도도 고려하여 인기아, 거부아, 보통아, 양면성아, 무시아로 구분(Coie & Dodge, 1983)하였다. 또래 선호도는 또래 집단 아동들에 의해 같이 놀고 싶은 아이로 지명된 점수에서 같이 놀고 싶지 않은 아이로 지명된 점수를 감해 산출된 연속적 변수로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아동의 친구 관계 경험은 친구가 있는지 여부, 친구의 특성, 친구 관계의 질로 구분할 수 있다(Hartup, 1996). 본 연구에서는 친구 관계 경험 유형 중에서 친구가 있는지 여부를 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연구 대상의 발달 특성에 맞춰 구체화하여 학급에서 가장 친한 친구 관계가 상호적인지 여부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초등학교 4, 5학년은 Sullivan(1953)이 단짝 친구(chumship)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시기로서 단순히 친구 유무를 알아보기 보다는 학급에서 서로 가장 친하다고 여기는 상호적인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지 여부가 발달 시기적으로 더욱 중요한 친구 관계 경험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이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또래 관계인 또래 수용과 친구 관계가 함께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지표인 외로움 및 자아존중감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또래 지위 및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은 아동의 외로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또래 지위 및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또래 선호도 및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은 아동의 외로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또래 선호도 및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서울시내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아동 275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아동의 학년과 성별에 따른 인원 분포는 <표 1>과 같다. 이 연령의 아동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이 시기에 또래 관계가 확립되며 아동 발달에 있어서 중요성이 커진다는 이론(Sullivan, 1953)에 근거한 것이다. 조사 대상 중 부실 기재한 8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267명(남자 133명, 여자 134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1> 연구 대상 아동의 학년 및 성별 분포

학년	성별		계(%)
	남(%)	여(%)	
4	72(26.2)	65(23.6)	137(49.8)
5	68(24.7)	70(25.5)	138(50.2)
계	140(50.9)	135(49.1)	275(100)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또래 선호도 산출 및 또래 지위 판정을 위한 또래 지명,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학급에서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을 쓰도록 한 질문, 외로움과 사회적 불만족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였다.

1) 또래 지명

아동이 학급의 또래들로부터 수용되는 정도를 측정하여 또래 선호도와 또래 지위를 산출하기 위하여 또래 지명이 사용되었다. 또래 지명은 같은 반에서 가장 같이 놀고 싶은 동성 친구 3명의 이름을 적도록 한 긍정적 또래 지명과 가장 같이 놀고 싶지

않은 동성 친구 3명의 이름을 적도록 한 부정적 또래 지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래 지명 검사를 통해 조사된 긍정적 또래 지명 수와 부정적 또래 지명 수를 사용하여 또래 선호 점수와 사회적 영향 점수를 산출하였다. 또래 선호 점수는 각 아동이 학급의 또래들로부터 받은 긍정적 지명 수와 부정적 지명 수를 각각 합한 후 학급별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표준화한 긍정적 지명 점수에서 표준화된 부정적 지명 점수를 감하여 산출하였으며, 사회적 영향 점수는 표준화한 긍정적 지명 점수와 부정적 지명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또래 선호 점수와 사회적 영향 점수를 사용하여 Coie와 Dodge(1983)의 기준에 따라 아동을 인기아동, 보통아동, 양면성아동, 무시아동, 거부아동 집단으로 나누어 또래 지위를 판정하였다. 판정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보통아(97명, 35.3%)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기아(71명, 25.9%), 거부아(59명, 21.4%), 무시아(38명, 13.8%) 순이었고, 양면성아는 10명(3.6%)으로 인원이 가장 적었다.

<표 2> 또래 지위 집단의 성별 인원 분포

또래지위	성별	남(%)	여(%)	계(%)
인기아		37(13.5)	34(12.4)	71(25.9)
보통아		48(17.5)	49(17.8)	97(35.3)
양면성아		4(1.5)	6(2.2)	10(3.6)
무시아		21(7.6)	17(6.2)	38(13.8)
거부아		30(10.9)	29(10.5)	59(21.4)
계		140(50.9)	135(49.1)	275(100)

2)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학급에서 아동의 가장 친한 친구가 상호적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학급 친구들 중에서 자신과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동성 친구 1명의 이름을 쓰도록 하였고, 여기에서 지명된 아동이 자신을 가장 친한 친구로 지명한 아동을 상호적으로 가장 친한 친구로 지명한 경우 학급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상호적인 것으로 판정하였다. 판정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장 친한 친구 관계가 상호적인 아동이 136명(50.6%), 상호적이지 않은 아동이 133명(49.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상

<표 3> 가장 친한 친구의 상호성 여부 성별 인원 분포

상호성	성별	남(%)	여(%)	계(%)
상호적		59(21.9)	77(28.6)	136(50.6)
비상호적		79(29.4)	54(20.1)	133(49.4)
계		138(51.3)	131(48.7)	269(100)

호적인 가장 친한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3) 외로움

아동의 외로움은 Asher와 Wheeler(1985)가 개발한 외로움과 사회 불만족 척도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Questionnaire)를 정영인(198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응답아동의 긴장을 피하고 심리적 부담을 줄여 솔직한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첨가되어 있던 8문항은 응답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제외하고 1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조금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리커트식 척도로 되어 있으며, 척도를 이루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0이었다.

4)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965)가 개발한 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아존중감 척도 (Self-esteem scale)를 심승원(2001)이 번안한 것을 참고하여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이 자신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조금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척도를 이루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3이었다.

3.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이 연구를 위한 자료는 2003년 12월 22일부터 27

일 사이에 질문지를 통해 조사되었다. 질문지는 조사 대상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8학년 교실에서 연구 목적과 질문지 응답 방법을 숙지한 학급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아 배부되고 회수되었다. 회수된 질문지 275부 중 무응답 문항이 많은 등 기재가 부실한 8부가 제외되었고 최종적으로 267(남자 133명, 여자 134명)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ersion 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자아존중감과 외로움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였고, 또래 지위와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에 따른 아동의 외로움 및 자아존중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고, 또래 선호도 및 상호적 친구 관계와 외로움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연구 문제를 고찰하기 위한 분석을 하기 전에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수들의 기술 통계치를 알아보았다. <표 4>는 또래 선호도, 외로움, 자아존중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다. 이 변수들의 평균은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1. 또래 지위 및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에 따른 외로움

아동의 또래 지위와 학급에서 가장 친한 친구의 상호성에 따라 아동이 학교에서 느끼는 외로움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하여 또래 선호도 점수와 사회적 영향 점수에 근거하여 판정한 또래 지위와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를 독립 변수로 하고 외로움 정도를 종속 변수로 하는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래 지위 집단 중 양면성 집단은 속한 아동 수가 10명밖에 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고 인기가, 보통아, 무시아, 거부아 집단만을 분석에 포

<표 4> 또래 선호도, 외로움, 자아존중감에 관한 기술 통계치

변수	성별(n)	평균	표준편차
또래 선호도	남(139)	.01	1.73
	여(134)	-.01	1.71
외로움	남(138)	1.99	.72
	여(135)	1.90	.60
자아존중감	남(138)	3.35	.65
	여(135)	3.38	.59

함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또래 지위에 따라 외로움을 경험하는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지위 집단 중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 간에 외로움 정도가 차이 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 검증으로 Scheffé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거부아로 판정된 아동이 인기가, 보통아, 무시아보다 외로움 경험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é 검증 결과는 각 또래 지위 집단의 외로움 평균 및 표준편차와 함께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학급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상호적인지의 여부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는 외로움 정도가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표 5). 가장 친한 친구가 상호적인 경우(외로움 평균=1.76, 표준편차=.50)가 비상호적인 경우(외로움 평균=2.11, 표준편차=.74)보다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 정도가 낮았다. 그러나, 아동의 또래 지위와 가장 친한 친구의 상호성 여부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또래 지위와 가장 친한 친구의 상호성 여부에 따른 아동의 외로움 이원변량분석

변량원	df	SS	MS	F
또래 지위 (A)	3	9.36	3.12	8.95***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 (B)	1	2.90	2.90	8.33***
A×B	3	1.29	.43	1.24
오차	250	87.12	.35	
전체	257	108.6		

*** p < .001

〈표 6〉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외로움 경험 정도 차이에 대한 Scheffé 검증

또래 지위	n	평균	표준편차	Scheffé
인기아	71	1.68	.43	A
보통아	97	1.85	.57	A
무시아	37	1.97	.79	A
거부아	53	2.41	.69	B

〈표 8〉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차이에 대한 Scheffé 검증

또래 지위	n	평균	표준편차	Scheffé
인기아	71	3.48	.63	A
보통아	97	3.43	.56	A
무시아	37	3.44	.67	A
거부아	53	3.08	.55	B

2. 또래 지위 및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

아동의 또래 지위와 가장 친한 친구의 상호성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하여 또래 지위 집단과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를 독립 변수로 하고 자아존중감을 종속 변수로 하는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외로움에 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또래 지위 집단 중 인원 수가 적은 양면성 집단은 제외하고 인기아, 보통아, 무시아, 거부아 집단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7〉에 제시된 분석 결과를 보면 아동의 또래 지위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지위 집단 중 어느 집단 간에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다른지 사후 검증으로 Scheffé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었다. 외로움에 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도 거부아 집단이 인기아, 보통아, 거부아와 유의한 차이가 있어 거부아 집단이 다른 세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 및 또래 지위와 가장 친

한 친구 상호성 여부간의 상호작용에 따라서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또래 선호도 및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에 따른 외로움

또래 선호도와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가 아동의 외로움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또래 선호도와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를 독립 변수로 하고 외로움을 종속 변수로 하는 2단계의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 독립 변수인 또래 선호도와 가장 친한 친구의 상호성 여부는 모두 또래 관계 관련 변수로서 서로 상관관계가 없지 않을 것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다중공선성 정도를 나타내주는 변량 확대 요인 계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산출해 본 결과 1.12로 나타나 Neter, Wasserman, & Kutner (1990)가 제시한 다중공선성 판정 기준인 10 미만이므로 분석 결과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1단계에서는 또래 선호도와 가장 친한 친구의 상호성 여부를 독립 변수로 하여 아동이 학교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설명하였고, 분석 2단계에서는 또래 선호도와 가장 친한 친구의 상호성 여부 간의 상호작용항을 산출하여 독립 변수로 추가 투입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외로움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남자 아동과 여자 아동의 외로움 정도를 비교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성별은 이 분석에서 통제 변수로 투입되지 않았다. 또래선호도, 가장 친한 친구의 상호성 여부, 또래선호도와 가장 친한 친구의 상호성 여부간의 상호작

〈표 7〉 또래 지위와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df	SS	MS	F
또래 지위 (A)	3	5.65	1.88	5.35**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 (B)	1	.01	.01	.01
A×B	3	1.74	.58	1.65
오차	250	88.03	.35	
전체	257	95.76		

** p < .01

용을 독립변수로 하여 외로움을 설명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의 결과는 또래 선호도와 친한 친구의 상호성이 외로움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독립변수임을 보여준다. 즉, 또래 집단에게 선호되는 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은 학교에서 외로움을 덜 느끼며, 학급에서 가장 친하다고 지명된 친구가 지명한 아동을 상호적으로 가장 친한 친구라고 보고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외로움을 적게 느낀다는 것이다.

2단계 분석은 또래 선호도와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간의 상호작용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인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p < .05$), 또래 선호도와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또래 선호도가 외로움을 설명하는 정도가 친한 친구 관계가 상호적인지 일방적인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분석 2단계에서는 또래 선호도와 가장 친한 친구 관계의 상호성 여부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1단계 분석에서 유의한 독립변수였던 또래 선호도가 더 이상 외로움을 설명하는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분석에서 유의미했던 또래 선호와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간의 상호작용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또래 선호도에 따른 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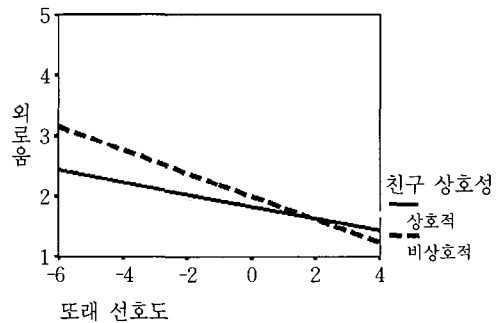
<표 9> 아동의 외로움에 대한 또래 선호, 친한 친구 상호성, 또래 선호도와 친한 친구 상호성간의 상호작용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B	SE _B	β	t
1단계 ($R^2 = .21$)				
또래 선호도	-.16	.02	-.40	-6.98***
친한 친구 상호성	-.15	.08	-.12	-2.02*
2단계 ($R^2 = .22$)				
또래 선호도	.0001	.08	.0003	.001
친한 친구 상호성	-.17	.08	-.13	-2.28*
또래 선호도 × 친한 친구 상호성	-.10	.05	-.42	-2.13*

* $p < .05$ *** $p < .001$

움 정도를 가장 친한 친구의 상호성 여부에 따라 각각 표시한 그래프를 작성해 보았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장 친한 친구가 상호적인 아동은 비상호적인 아동에 비해 외로움을 느끼는데 있어서 또래 선호도의 영향을 적게 받았다. 즉, 한 아동에 의해 학급에서 가장 친한 친구로 지명 받은 아동이 자신을 지명한 아동을 가장 친한 친구로 보고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또래 집단의 선호도가 낮아도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낮았다.



<그림 1> 또래선호도와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에 따른 아동의 외로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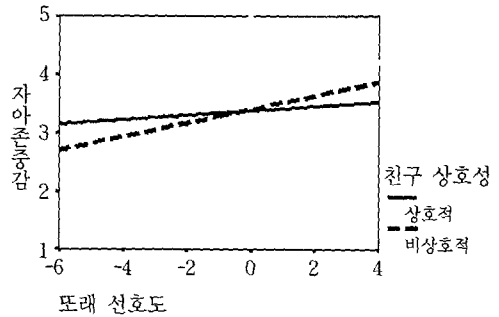
4. 아동의 또래 선호 및 상호적 친구 관계에 따른 자아존중감

또래 선호도와 가장 친한 친구의 상호성 여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외로움에 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또래 선호도와 가장 친한 친구의 상호성 여부를 독립 변수로 하고 자아존중감을 종속 변수로 하는 2단계의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1단계에서는 또래 선호도와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를 독립 변수로 하여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하였고, 분석 2단계에서는 또래 선호도와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 간의 상호작용 항을 독립 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또래선호도, 가장 친한 친구의 상호성 여부, 또래선호도와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간의 상호작용을 독립변수로 하여 자아존중감을 설명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었다.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 1 단계의 결과는 또래 선호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독립변수임을 보여준다. 즉, 또래 집단에게 선호되는 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급에서 가장 친하다고 지명된 친구가 지명한 아동을 상호적으로 가장 친한 친구로 생각하는가 여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가 아니었다.

2단계 분석에서는 또래 선호도와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간의 상호작용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상호작용 항의 추가로 전체적인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p < .05$), 또래 선호도와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여 또래 선호도가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정도가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단계 분석에서 유의미했던 또래 선호와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간의 상호작용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또래 선호 정도에 따른 자아존중감 수준을 가장 친한 친구의 상호적 지명 여부에 따라 구분한 선 그래프를 작성해 보았다.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장 친한 친구가 상호적인 아동은 비상호적인 아동에 비해 자아존중감 수준이 또래 선호도의 영향을 적게 받았다. 즉, 한 아동에 의해 학급에서 가장 친한 친구로 지명 받은



<그림 2> 또래선호도와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이 자신을 지명한 아동을 가장 친한 친구로 보고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또래 선호도에 의해 자아존중감 수준이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또래 관계 경험 중 또래 수용과 친구 관계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지표 중 외로움 및 자아존중감과 어떻게 관련 되는지 알아보았다.

또래 지위 및 학급에서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에 따라 아동이 학교에서 느끼는 외로움 정도가 다른지를 이원변량분석하여 알아 본 결과, 아동의 외로움 정도는 아동의 또래 지위와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 각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학급의 아동들이 같이 놀기를 원하지 않는 거부아가 인기가, 보통아, 무시아보다 외로움을 경험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또래에게 거부되는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외로움이나 우울증상 등 심리적 적응상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도현심, 1996; 김윤경, 이옥경, 2001)와 일관된다. 또한, 거부아들은 대체로 공격적이거나 (Bagwell et al., 1998; Dodge, Coie, Pettit, & Price, 1990; Coie, Dodge, Terry, & Wright, 1991; Gest,

<표 10>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또래 선호, 친한 친구 상호성, 또래 선호도와 친한 친구 상호성간의 상호작용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B	SE _B	β	t
1단계 ($R^2 = .06$)				
또래 선호도	.09	.02	.25	3.91***
친한 친구 상호성	-.05	.08	-.05	-.71
2단계 ($R^2 = .07$)				
또래 선호도	-.05	.08	-.15	-.68
친한 친구 상호성	-.04	.08	-.03	-.48
또래 선호도 × 친한 친구 상호성	-.09	.05	.41	1.90*

* $p < .05$ *** $p < .001$

Graham-Bermann, & Harup, 2001) 과잉활동 성향이 있거나 (Pope, Bierman, & Muma, 1991), 사회적 기술 및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거나(Black & Hazen, 1990),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되는(Bierman, Smoot, & Aumiller, 1993) 행동 특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이러한 특성을 가진 아동들은 또래들이 함께 어울리기를 꺼리게 되고 이에 따른 고립 상황에서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학급에서 가장 친한 친구의 상호성 여부에 따라서도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에 차이가 있었는데 학급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상호적인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외로움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 관계는 아동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Berndt, 1982; Hartup, 1996), 소속감을 갖게 하여(Lewis & Feiring, 1989) 사회적 상황에서 만족하는 정도가 높아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또래 지위 및 학급에서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지위에 따른 외로움의 차이가 가장 친한 친구의 상호성 여부에 따라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이 결과에 대해 또래 지위대신 또래 선호도와 외로움 경험 간의 관계가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에 따라 다른지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시 살펴보았다. 위계적 회귀 분석의 결과는 이원변량분석 결과와 일관성을 보여 또래 수용 정도를 나타내는 또래 선호도와 가장 친한 친구의 상호성 여부가 아동의 외로움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또래 집단으로부터 같이 놀고 싶은 상대로 지명 받은 수가 많고, 같이 놀고 싶지 않은 상대로 지명 받은 수가 적을수록 아동이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낮았으며, 가장 친한 친구가 상호적인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외로움을 덜 경험하였다. 또한, 이 분석에서는 또래 선호도와 가장 친한 친구의 상호성 여부간의 상호작용도 유의하게 나타나 가장 친한 친구가 상호적인 아동은 비상호적인 아동과 비교했을 때, 또래 선호도가 낮아도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장 친한 친구가 상호적인 아동은 외로움 경험에 있어서 또래 선호도의 영

향을 덜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또래 집단에게 수용되지 못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도 친한 친구가 있으면 또래 집단에서의 부정적 경험과 관련된 심리적 부적응을 적게 보인다는 선행 연구 결과(e.g., Hodges, Boivin, Vitaro, & Bukowski, 1999) 와 일관된다. 또한, 가장 친한 친구 관계의 대표적 속성이 신뢰(김윤경, 이옥경, 2001)라는 선행 연구의 보고와 관련지어 볼 때, 아동이 또래 집단으로부터 잘 수용되지 못해도 항상 믿고 심리적으로 위안받을 수 있는 친한 친구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외로움을 덜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래 지위와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를 독립변수로 한 이원변량분석에서는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외로움의 차이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은 반면, 또래 지위 대신 또래 선호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와 함께 외로움을 설명하도록 한 회귀분석에서는 또래 선호도와 가장 친한 친구의 상호성 여부간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차이는 또래 지위는 비연속적 변수로서 연속적 변수인 또래 선호도 점수를 독립 변수로 할 때보다 변수의 변량이 적어 통계적 파워(statistical power)가 약하기 때문(Cohen, 1988)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래 지위 및 학급에서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다른지를 이원변량 분석하여 알아 본 결과, 또래 지위만이 유의한 독립변수로서 거부아 집단이 인기아, 보통아, 무시아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선행 연구들(eg., Harter, 1983)에 근거해 해석할 수 있다. 즉, 또래 지위는 또래 집단이 아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또래 집단이 아동을 집단 일원으로 간주하지 않고 집단 참여에 허용적이지 않을 때 아동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상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또래들에게 거부되는 아동이 모두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개인차가 있다는 연구 결과(Harist, Zaia, Bates,

& Dodge, 1997)에 따르면 거부아들은 공격적인 경우도 많지만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불안 및 우울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거부아 집단을 심리적, 행동적 특성에 따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고찰한 선행 연구(김윤경, 이옥경, 2001)에서도 공격적인 아동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등 자신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은 편인 반면 위축 경향을 보이는 거부아는 자아존중감이 낮거나 주장성이 낮은 등 내현화 문제를 보였다. 따라서, 거부아 집단을 이루는 아동들 중 불안 및 우울 성향을 나타내는 아동들의 낮은 자아존중감 경향으로 인해 거부아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고도 할 수 있겠다. 한편, 가장 친한 친구의 상호성 여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차이에 관한 유의한 독립 변수가 아니었다. 이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친구 관계가 단기적으로는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20대 초반의 자아존중감은 유의하게 예측했음을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Bagwell et al., 1998)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즉, 학령기 아동의 친구 관계 경험은 자아존중감과 관계가 있는데 친구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자아존중감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장의 자아존중감 보다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Buhrmester, 1996; Sullivan, 1953).

또래 지위와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자아존중감 차이를 설명하는데 유의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또래 선호도와 가장 친한 친구의 상호성 여부로 설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시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1단계 분석에서는 또래 선호도가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설명했지만 독립변수로 상호작용 항을 추가한 2단계 분석에서는 또래 선호도와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간의 상호작용만이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즉, 또래 선호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학급의 가장 친한 친구가 상호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가장 친한 친구가 상호적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또래 선호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반면, 가

장 친한 친구가 비상호적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또래 선호도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아동의 또래 관계를 일원적 개념이 아닌 몇 가지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선행 연구들(Parker, & Asher, 1993; Vandell & Hembree, 1994)의 주장을 지지한다. 또한, 아동의 실제 또래 관계 경험은 또래 수용과 친구 관계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영역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또래 관계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Ladd et al., 1997)도 뒷받침한다.

학령기 아동의 또래 관계 경험을 이루는 또래 수용과 친구 관계가 함께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지표인 외로움 및 자아존중감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고찰한 본 연구는 또래 집단이 아동 개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인 또래 선호도에 따라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과 자아존중감이 다르며, 다른 정도는 아동의 가장 친한 친구가 상호적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또래 경험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개념들이 아동의 적응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고찰하기 위해서는 또래 관계 경험의 서로 다른 영역들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학교의 4, 5학년 아동만을 대상으로 자료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들이나 다른 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할 경우 결과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둘째, 또래 관계 경험이 아동의 외로움과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이 연구는 횡단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므로, 외로움과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아동의 또래 관계 경험이 다른데서 기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 셋째, 아동의 또래 지위 집단 중 인원이 적은 양면성 집단을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여 모든 또래 지위 집단을 포함한 분석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또래 선호도와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간 상호작용은 외로움과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였으나 또래 지위와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간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점도 더 많은 수의 연구

대상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한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 참고문헌

- 김윤경, 이옥경(2001).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과 행동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2), 65-82.
- 도현심(1996). 아동의 수줍음, 대인 적응성 및 또래 수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33-45.
- 심승원(2001).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 김정윤, 오원정(2001). 아동의 또래지위 및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아동학회지*, 22(1), 1-18.
- 정영인(1988). 인기도에 따라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 및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보가, 임지영(1999). 또래 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5), 111-121.
- Asher, S. R. & Wheeler, V. A. (1985). Children's loneliness: A comparison of rejected and neglected peer statu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4), 500-505.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 140-153.
- Bierman, K. L., Smoot, D. L., & Aumiller, K. (1993). Characteristics of aggressive-rejected, aggressive (non-rejected), and rejected (non-aggressive boys). *Child Development*, 64, 139-151.
- Black, B., & Hazen, N. L. (1990). Social status and patterns of communication in acquainted and unacquainted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379-387.
- Berndt, T. J. (1982). The features and effects of friendship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 1447-1460.
- Berndt, T. J., & Perry, T. B. (1986). Children's perceptions of friendships as supportive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640-648.
- Buhrmester, D. (1996). Need fulfillment,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the developmental contexts of early adolescent friendship.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 158-18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kowski, W., & Hoza, B. (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 J. Berndt & G. W. Ladd(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ition). Hillsdale, NJ: Erlbaum.
- Coie, J., & Dodge, K. (1983).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hildren's social status: A five 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29, 261-282.
- Coie, J. D., Lochman, J. E., Terry, R., & Hyman, C. (1992). Predicting early adolescent disorder from childhood aggression and peer reje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 783-792.
- Coie, J., Dodge, K., Terry, R., & Wright, V. (1991). The role of aggression in peer relations: An analysis of aggression episodes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2, 812-826.
- Crick, N. R., & Ladd, G. W. (1993).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eer experiences: Attributions, social anxiety, and social avoid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9, 244-

- 254.
- Dodge, K. A., Coie, J. D., Pettit, G. S., & Price, J. M. (1990). Peer status and aggression in boys' groups: Developmental and contextual analyses. *Child Development, 61*, 1289-1309.
- DeRosier, M. E., Kupersmidt, J. B., & Patterson, C. J. (1994). Children's academic and behavioral adjustment as a function of chronicity and proximity of peer rejection. *Child Development, 65*, 1799-1813.
- Franco, N., & Levitt, M. (1998). The social ecology of middle childhood: Family support, friendship quality and self-esteem. *Family Relations, 47*, 315-312.
- Gest, S. D., Graham-Bermann, S. A., & Hartup, W. W. (2001). Peer experience: Common and unique features of number of friendships, social network centrality, and sociometric status. *Social Development, 10*, 23-40.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er, S. (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P.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New York: Wiley.
- Hartup, W. W. (1996).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Child Development, 67*, 1-13.
- Hodges, E., Boivin, M., Vitaro, F., & Bukowski, W. M. (1999). The power of friendship: Protection against an escalating cycle of peer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5*, 94-101.
- Harrist, A. W., Zaia, A. F., Bates, J. E., Dodge, K. A., & Tettit, G. S. (1997). Subtypes of social withdrawal in early childhood: Sociometric status and social-cognitive differences across four years. *Child Development, 68*, 278-294.
- Hymel, S., Rubin, K. H., Rowden, L., & Lemare, L. (1990).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 Longitudinal Prediction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From Middle to Lat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2004 - 2021.
- Ladd, G. W., & Kochenderfer, B. J. (1996). Linkages between friendship and adjustment during early school transitions. In W. M. Bul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7). Classroom peer acceptance, friendship, and victimization: Distinct relational systems that contribute uniquely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8*, 1181-1197.
- Lewis, M., & Feiring, C. (1989). Early predictors of childhood friendship. In T. J. Berndt & G. W. Ladd (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246-273.
- Neter, J., Wasserman, W. and Kutner, M. H. (1990). *Applied Linear Statistical Models*, 3rd Edition, Irwin, Boston, MA.
- Parker, J.,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 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arker, J.,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 Pope, A. W., Bierman, K. L., & Muma, G. H. (1991). Aggression, hyperactivity, and inattention- immaturity: Behavior dimensions associated with peer reje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7*, 663-67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ullivan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Vandell, D., & Hembree, S. (1994). Social status and friendship: Independent contributors to children's 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Merrill-Palmer Quarterly*, 40, 461-477.

Wentzel, K. R., & Asher, S. R. (1995). The academic

lives of neglected, rejected, popular, and controversial children. *Child Development*, 66, 754-763.

(2004년 3월 31일 접수, 2004년 5월 11일 채택)